

여순사건 업무담당자 워크숍, 사건 발발지인 '여수'서 열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가 주관한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사건 발발지인 '여수'에서 열렸다. 실무위원회와 전남도 22개 시군 업무담당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직무 교육, 분임토의 및 과제 발표, 자유토

론, 평가 및 시상,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 신고접수 개선 방안, 국민 인식 부족 극복을 위한 홍보 방안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전라남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신고·접수율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순사건위원회 위원과 지역 유족회장, 정기명 여수

시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은 단순히 여수나 순천, 전남 동부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라며 "사건 발발지인 여수가 중심이 돼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화합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여순사건위원회 장현범 단장은 "희생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고령이다 보니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의 피해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다. 개별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할 경우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 희생자 및 유족으로의 결정을 원할 경우 전남도나 시군, 가까운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이유빈기자

곡성 디지털 체험존, 할머니도 VR 삼매경 스마트폰·키오스크·AR/VR·AI 스피커 체험 가능

곡성군이 29일까지 곡성읍, 삼기면, 고달면을 제외한 8개 면을 순회하며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누구나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평소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면 체험존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식당이나 상점에서 접하게 되는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 방법도 배울 수 있다. AR/VR 기기도 갖춰져 있어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가정용 AI 스피커를 통해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1대 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곡성군에서는 곡성을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

해 왔다.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험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읍권 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면사무소로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곡성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69%인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면 지역은 젊은 연령층이 더욱 부족해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도 적은 편이라 주민들이 최신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및 정보화 기기를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자고 만든 기기들인데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기기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체험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선섭기자

광양,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31일(1개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대상 산지와 자격, 지급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2022년 7월 1일~9월 30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은 2023년부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임업경영체는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광양시민의 경우 남원시에 소재하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철도관사마을의 특색을 살려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근일 철도관사마을 해설사 양성교육을 개강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철도관사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운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철도관사마을의 특색을 살려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근일 철도관사마을 해설사 양성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 철도관사마을의 역사, 마을유산 알아보기, 해설사의 기본자세 등 기본 학습 강의와 더불어 해설 시나리오 작성, 해설 시연, 스피치 트레이닝, SNS 및 사

진촬영기법과 같은 실습형 교육으로 구성돼, 9월 15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40명의 수강생들은 철도관사마을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적 특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색 있는 해설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계획이며, 기존 마을해설사들이 교육생들에게 시나리오 피드백, 해설 시연 연습 등에 대한 멘토 역할

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총 10강 중 80%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자에 한해 2023년 철도관사마을 해설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강생 모두가 철도관사마을의 해설사로서 역량을 갖춰, 현장에서 방문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구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

구례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만2천804건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원 초과하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진식기자